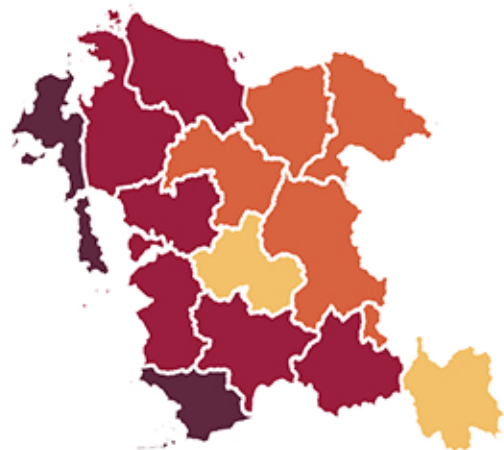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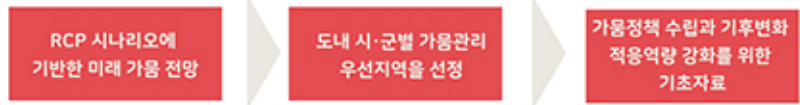


충청남도의 미래 극한 가뭄 대책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활용

RCP8.5 시나리오에 기반한 충청남도의 21세기 후반기(2071-2100년) 연평균기온과 연강수량 전망 (기상청, 2018)



21세기 후반 충청남도 연평균 기온 전망 분포도

미래의 충청남도의 기온은 어떻게 변할까요?

충청남도 연평균기온(12.0℃)은 우리나라 평균(12.8℃)보다 0.8℃ 낮고, RCP8.5에서 충청남도의 미래(2071-2100년) 연평균기온 상승 정도(+4.0℃)는 우리나라 평균 상승폭보다 0.1℃ 작을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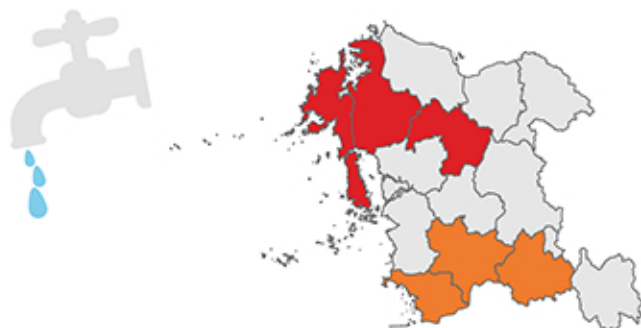


21세기 후반기에 충청남도의 연평균기온과 연강수량의 전망은 가뭄과 수자원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

미래의 충청남도의 강수량은 어떻게 변할까요?

RCP8.5에서 충청남도의 미래(2071-2100년) 연강수량 증가율은 우리나라 평균(+9.0%)에 비해 작은 3.0%임. 서천군에서 강수량 증가율(+8.7%)이 가장 크고 태안군에서 강수량 감소율(-1.0%)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내며, 그 차이는 9.7%임.

21세기 후반기(2071~2100년) 단기 가뭄 전망 (3개월 누적 강수량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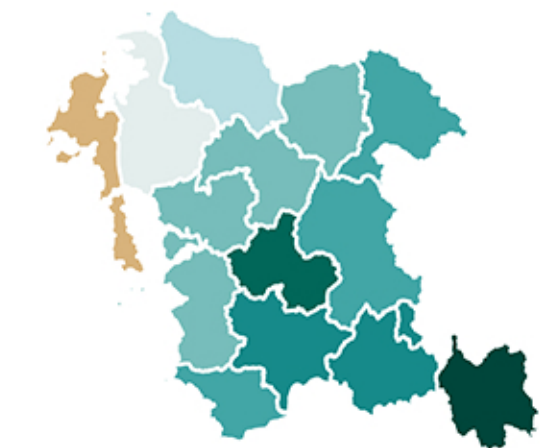


악한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지만 보통가뭄의 발생빈도는 감소 (주의: 부여, 논산, 서천, 우령, 태안, 예산, 서산)

21세기 후반기(2071~2100년) 장기 가뭄 전망 (12개월 누적 강수량 기준)



악한 가뭄 및 보통의 가뭄 발생빈도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 (주의: 공주, 보령, 계룡, 우령, 서산)



21세기 후반 충청남도 연강수량 전망 분포도